

이유 없는 어두 경음화의 환경에 대하여

윤예진*

I. 서론

1. 연구 목적

경음화는 한국어의 대표적인 음운 현상 중 하나로, 경음이 아닌 소리가 경음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특정한 환경에서 평음 ‘ㄱ, ㄷ, ㅂ, ㅅ, ㅈ’가 경음 ‘ㄲ, ㄸ, ㅃ, ㅆ, ㅉ’로 바뀌는 현상이다(김성규·정승철 2005: 160). 이 때 경음화의 환경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인데, 다음과 같다.

- ① 평폐쇄음 뒤에서의 경음화
- ② 말음이 ‘ㄴ,ㅁ’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서의 경음화
- ③ 관형형 어미 ‘-을/ㄹ’ 뒤에서의 경음화
- ④ 한자어에서 ‘ㄹ’ 뒤 ‘ㄷ,ㅅ,ㅈ’의 경음화

(김성규·정승철 2005: 161)

①의 예는 ‘작대작때’, ②의 예로는 ‘(눈을) 감대감때’, ③의 예로는 ‘먹을 것(머글 껏)’, ④의 예로는 ‘물가(物價)(물까)’가 있다. 이러한 경음화 현상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뤄졌고 원인과 환경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다. 그러나 위의 네 가지 경음화 환경은 모두 어중의 경음화 현상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위와 같은 어중 경음화 현상은 필수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수세미[쑤세미]’와 같은, 수의적이고 확실한 원인이나 조건 없이 일어나는 어두 경음화 현상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음운론 개론서들 역시 어두 경음화 현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요즈음 젊은 층의 말에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단어의 첫 자음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이 예들은 연결되는 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 것이 아니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예가 된다.”(김성규·정승철 2005: 161)

“(특이한 경음화)네 번째로 어두에서 적용되는 경음화도 있다. ‘닦다>닦다, 감다>깝다, 볶다>뽕다’ 등은 어두에서 일어난 경음화인데 이 현상은 중세국어부터 있어 왔다.”(이진호 2005: 125)

“‘조금)조금, 세-(强)세-, 닦->닦-’과 같은 어두 경음화도 강화이다.”(배주채 1996: 122)

그러나 어두 경음화에 대해서 위와 같이 경음화를 설명하면서 간단히 언급만 하는 정도고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그 원인은 앞서 말했듯이 어두 경음화에 대한 확실한 조건이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두 경음화는 그 존재에 비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도 잘못된 언어 사용으로 규정하고, 교정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주로 언어 외적인 원인론만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엄연히 한 언어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을 교정의 대상으로만 보거나, 언어 외적으로 원인을 돌리는 이러한 방향성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수세미’의 경우 거의 모든 한국어 화자(95.8%)가 ‘[쑤세미]’라고 발음하는데(한명숙 2011: 35), 표준 발음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사회적·심리적 원인들의 경우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개별 단어가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

최근 논의는 언어 내적으로 어두 경음화 현상의 원인을 구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러나 어두 경음화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러한 기존 원인 논의의 공통적 문제점은 광범위하고 수의적인 어두 경음화 현상을 특정 이론을 정립해놓고 그 입맛에 맞는 예만을 골라서 설명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

저 이러한 논의를 반례를 보임으로 그 맹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어두 경음화는 원인과 환경이 불분명한 채로 남을 수밖에 없는가? 많은 한국어 화자들이 어두 경음화에 대한 직관¹⁾을 가지고 있기에 무조건적인 현상이라 보기는 힘들 것이다. 수의적으로 모든 단어에 적용이 된다면 규칙성이 없다시피 하겠지만,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단어 간의 공통점도 존재하고 어두 경음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예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예들의 공통적 특징을 찾아내고,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와 비교하여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소극적으로나마 찾아내보고자 한다. 비록 적극적으로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하더라도 환경을 통해 원인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앞서 보았듯이 어두 경음화의 존재 여부는 알려져 있었지만, 그 원인이나 환경은 명확히 설명되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어두 경음화 자체만을 다룬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고, 한국어의 다른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된 것이 많다.

이기문(1972)은 후기 중세 국어에서의 어두 경음화를 ‘격렬성을 띤 동작을 보다 인상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어두음이 된소리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어두 경음화를 역시 의미 강화의 입장에서 본 것인데, 그 강화의 원인은 심리적인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전광현(1981)은 전라북도 옥구 방언의 특징을 다루면서 어두 경음화를 함께 논의하였는데, 어두 경음화 현상을 언어의 생경성(生硬性)의 확대 현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어두 경음화의 실현범위나 환경적 제약을 도출하기가

1) ‘가시’의 경우에는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 발음인 ‘끼시’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가슴’이나 ‘가사(歌詞)’의 경우에는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 발음인 ‘끼슴’이나 ‘끼사’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직관이 한국어 화자에게 있는 이상, 어두 경음화가 조건 없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어렵고, 어두 경음화형이 최소 대립쌍을 형성하지 못하기에 수의적인 현상이라 정리하였다. 그리고 전술한 생경성의 확장이라는 어두 경음화의 원인은 역시 사회의식에 따른 언중들의 심리적 요인에서 출발되었다고 보았다.

김성규(2001)는 문자언어와 음성언어를 구별하고 둘의 상관성을 설명하면서, 음성언어의 대표적 예로 일상대화를 들고 어두 경음화를 그 안에서 다루고 있다. 역시 구어에서 일어나는 ‘쯤전’의 ‘쯤’이나 ‘쎄련, 뿐때’ 등의 일련의 어두의 경음화를 의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 보았다. 이 때 발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는데, 조심스러운 발화에서는 언제든지 표준 어형으로 복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어에서의 변화는 음운 체계 상의 변화가 아니라 보았다.

사회 언어학적으로 어두 경음화에 접근한 이미재(1989)는 어두 경음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 역시 어두 경음화를 의미 강화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위 연구와 큰 차이는 없다. 경기도 화성군 주민들의 언어 분석을 통해, 이러한 강화를 화자의 심리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고 긍정적 극대화와 부정적 극대화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세다>쎄다’ 같은 경우 화자가 정도의 극대화를 표현하기 위함이고, ‘시어머니>씨어머니>씨애미’의 경우 화자의 부정적인 극대화가 이뤄져있다고 본 것이다. 이때 긍정적인 극대화는 정확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정확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 어두 경음화 현상이 짚을수록, 여자보다 남자가 더, 하류층일수록, 일상적 대화에서 더 잘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이 중 연령별 경향성은 서울 토박이를 대상으로 한 이호영(2009)의 경향성 연구에서도 잘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왜 해당 단어들에 대해서 강화가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언어내적인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최근에 이러한 어두 경음화에 대해 그 원인을 언어 내적으로 접근한 시도가 있었다. 박동근(2000), 한명숙(2011)이 그런 접근을 시도했다고 할 수 있다.

박동근(2000)은 어두 경음화 현상을 언어 내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원인과 제약을 찾으려고 한 본격적인 논의이다. 이 논문에서는 어두 경음화 현상을 예측 불가능한 현상이 아니라 일정한 규칙과 원리가 있다 보았다. 통계조사

를 통해 어두 경음화가 주로 방언에서 일어나며, 한자의 어두 경음화는 예외적이며, 일정한 형태적 정보를 가지고 실현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 기존에 의미 강화로 설명되었던 것을 세분화하여 의미 기능으로 ‘강조’의 의미를 실현하는 경우와,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더하는 경우,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경우,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의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 이들의 실현 원리를 ‘동음충돌 회피 원리’와 ‘동음충돌 저지 원리’의 두 가지를 제시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① 동음충돌 회피 원리(박동근 2000)

된소리 쌍을 갖는 예사소리로 시작하는 낱말 가운데 뜻이 다른 같은 형태의 어형(동음이의어)이 존재하면 그 가운데 하나는 첫소리를 된소리로 교체하여 동음충돌을 회피하려 한다.

② 동음충돌 저지(blocking) 원리(박동근 2000)

첫소리를 된소리로 교체한 결과 이미 존재하는 다른 낱말과 동음충돌이 일어날 경우에는 된소리되기가 저지된다.

즉 이 두 원리로 인해 어두에 평음을 가진 말 중, 동음이의어가 있으면서 ①, 평음을 경음으로 교체했을 때 동음이의어가 생기지 않는 경우 ②에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다고 본 것이다.

한명숙(2011)은 어두 경음화의 원인을 언어 외적 원인, 언어 내적 원인으로 나누어 기존의 논의를 폭넓게 수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언어 내적 원인으로는 역시 박동근(2000)의 동음이의어 회피와 의미 분화에 따른 것이라는 원인론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또한 방언에서의 어두 경음화 현상을 자세히 다루었다.

그러나 위의 두 논문의 의미 분화와 관련된 언어 내적 원인 설명 역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특히 박동근(2000)의 두 원리에 의해 제한되는 환경은 해당하는 환경에서 일어나지 않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반례를 모두 갖고 있어 설득력이 약하다. 그런 까닭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원인론들에 대해 재론해보고자 한다.

II. 기존 언어 내적 원인론에 대한 재론

1. 체언의 강화와 관련하여

앞서 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이 대부분 어두 경음화가 음운론적 강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것이 의미상의 강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쓰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의미상의 강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정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식언이나 용언의 경우에는 정도 부사와 결합이 가능하고 쉽게 정도성을 갖는 데에 반해, 체언의 경우에는 정도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미재(1989)의 논의와 같이 심리·사회적으로 정확하게 발음하고자 하기 때문에 체언의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다고 보면, 왜 특정 명사에만 일어나고 어떤 명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지 설명할 수 없다.

- (1-ㄱ) 사나이>싸나이, 가시>까시, 생머리>쌩머리, 족집개>쪽집개
- ㄴ. 가죽>까죽, 주꾸미>쭈꾸미, 수세미>쑤세미
- ㄷ. 가슴>꺄슴, 수다쟁이>*쑤다쟁이, 갈고리>*갈고리

(1-ㄱ)은 체언 중에 그나마 정도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단어들이다. ‘사나이’보다 ‘싸나이’가 ‘더 남자다움’을, ‘가시’보다 ‘까시’가 ‘더 따가움’을, ‘생머리’보다 ‘쌩머리’가 ‘더 곧음’을, ‘족집개’보다 ‘쪽집개’가 ‘더 잘 집어낼 수 있음’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준 역시 정도 부사와의 연결과 같이 자료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1-ㄴ)의 예에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도저히 의미 강화로 설명할 수 없다. 정확하게 발음하고자 경음화를 일으켰다고 하기에는 인명이나 지명같이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도 아니고 발음이 유사한 단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일어나야 할 이유를 알 수 없다. 또한 (1-ㄷ)의 경우에는 거의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들인데,²⁾ (1-ㄷ)은 정확하게 발

음하고자 하지 않은 까닭이 없다. 따라서 체언의 어두 경음화를 설명하는데에 있어서는 ‘의미 강화’라는 원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동근(2000) 역시 이런 점을 파악하고 있어 세분화한 것이다. 네 가지로 세분화하였는데, 사실상 (2-ㄱ, ㄴ, ㄷ)와 (2-ㄹ)의 두 가지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2) 박용근(2000)의 의미 분화 상세 분류

- ㄱ. ‘강조’³⁾를 실현: 사나이>싸나이, 생머리>쌩머리, 조각조각>쪼각쪼각, 질기다>찔기다 등
- ㄴ. 비하하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더함: 곱추>꼽추, 곰보>꼼보, 지린내>찌린내, 베끼다>빼끼다 등
- ㄷ.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경우: 건수>깬수, 장>짱, 졸다>쫄다, 기>끼 등
- ㄹ.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 가죽>까죽, 거꾸로>꺼꾸로, 거리낌>꺼리낌 등

먼저, (2-ㄱ)와 (2-ㄴ)의 구별이 유의미한 지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2-ㄴ)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모두 평음일 때도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다. 따라서 그 부정적인 의미나 비하의 의도는 (2-ㄱ)의 의미 강화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빼끼다’와 같은 경우에도 “OMR카드에 있는 답을 수험표 뒤에 다 빼껴쓰고 제출하도록 해.”에서와 같이 굳이 부정적인 의미가 없을 때에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ㄱ)와 크게 다르지 않다. (2-ㄷ)의 의미 분화에 대해서는 2.2에서 논의하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수한 몇 개 예(한자어 접두사 계통)를 제외하고는 모두 (2-ㄱ)와 큰 차이가 없다. 결국 (2-ㄱ, ㄴ, ㄷ)의 의미 강화로 설명이 되는 것과 (2-ㄹ)의 의미 강화로 설명이 어려운 것((1-ㄴ))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범주의 차이와 (1-ㄴ)와 (1-ㄷ)의 차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2) 직관은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1-ㄷ)의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3) 본고에서 사용하는 의미 강화의 의미와 상통한다.

2. 의미 분화와 관련하여

박용근(2000)과 한명숙(2011)은 의미 분화와 동음이의성 회피가 어두 경음화의 언어 내적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은 언어 내적인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어두라는 환경이 음운·형태론적으로는 어중 경음화와 같이 확실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의미 변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2.1. 동음이의성 회피

특히 박용근(2000)이 제시한 ‘동음충돌 회피 원리’와 ‘동음충돌 저지 원리’⁴⁾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 그러나 저자 자신도 언급했듯이(박동근, 2000: 19), 이 원리의(특히 ‘동음충돌 회피 원리’) 작용력은 한계가 분명하다. 숱한 동음이의어 쌍 중에서 극히 일부만 어두 경음화로 인한 동음이의성 회피를 보인다. 또한 역으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 단어들 중에서도 동음이의어를 갖는 단어는 손에 꼽는다. 따라서 이 원리가 결국 어떤 환경에서 일어나는지를 조사해야만 원인론으로 완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 다의어의 의미 분화

이 동음이의성 회피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 의미 분화, 혹은 변별일 것이다. 이것은 어두 경음화로 인해 기존의 평음형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4) 본고 3쪽 참조.

5) 형용사 ‘다르다(different)’의 관형형 ‘다른’의 경우에는 동음충돌 저지 원리 때문에 ('따르다'의 관형형 '따른')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어여야하기에 본 의미인 ‘다른(different)’은 보통 어두 경음화가 잘 안 일어나는 데에 반해, 파생된 관형사 ‘다른(another)’은 ‘따른’으로 경음화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관형사 ‘만’에 이끌려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현상으로, 동음충돌 저지 원리 역시 완벽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사나 명사에서도 몇몇 예외가 보인다.

가진 단어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위에서 본 박동근(2000)의 (2-ㄷ)와 한명숙(2011)의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3) 어두 경음화가 의미 변별에 기여한 예(한명숙 2011: 57~58)

- ㄱ. a 졸다: 찌개, 국, 한약 따위의 물이 증발하여 분량이 적어지다.
- b 쫄다: 위협적이거나 압도하는 대상 앞에서 겁을 먹거나 기를 퍼지 못하다
- ㄴ. a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런 짐승
- b 새끼: 누군가를 욕할 때 상대를 낮추어 이르는 말
- ㄷ. a 고추: 식물
- b 고추: 남성 성기

의미 강화 역시 넓게 본다면 새로운 의미를 만든다고 볼 수 있지만, 박동근(2000)의 (2-ㄷ)⁶⁾이나 한명숙(2011)의 (3)예와 같이 파생되어 그 의미의 차가 큰 경우에 한정하여 의미 분화라는 현상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때, 과연 어두 경음화가 의미 파생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봐야한다. (3)의 예들을 다시 살펴보면, b의 용법으로 쓰일 때에는 어두 경음화형이 선호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a의 용법으로 쓰일 때에도 충분히 어두 경음화형이 사용될 수 있다.

(3-1)

- ㄱ. a ‘국물이 너무 쫄아서 짜다.’
- ㄴ. a ‘아직 새긴데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 ㄷ. a ‘고추가 빨갛게 익었으니, 빽아서 고춧가루를 만들어야겠다.’

이것은 반드시 어두 경음화가 의미 변별을 위해 쓰인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본래 의미를 강조할 때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면서 의미 분화가 일어난 b가 있다면, 동음충돌 저지 원리에 의해서 a의 경우 (3-1)와 같은 어두 경음화형이 있을 수 없다. 따라

6) (2-ㄷ)의 예 중에서 1음절 한자어 관련 경음화의 의미 분화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고, 3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자체가 드문 현상이며, 1음절 한자어들은 독특한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 어두 경음화가 의미 분화를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인과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확증이 없기에 b의 파생적 의미가 어두 경음화형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정도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⁷⁾ 그리고 그 상관관계의 기저에는 의미 강화가 있을 것이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고 추정단계이나, 의미 분화가 비유적 표현에 의해 형성되면서 그 의미가 강화된 형태인 어두 경음화형을 선호하여 사용하기 때문이라 추측해봄직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의미 분화는 동음이의 성 회피와 마찬가지로 모든 의미 분화 과정에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과, 어두 경음화 전부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한계가 있다.

결국 어두 경음화를 언어 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대부분 일부 예를 설명하는 데에 그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전반적인 어두 경음화 현상을 포괄하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 누누이 제기되었던 의미 강화와 관련된 것 정도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⁸⁾ 그렇다면 어두 경음화는 의미 강화가 될 수 있는 모든 단어에서 실현되어야만 한다. 또한 우리는 아직 체언에서의 (1-ㄴ)와 (1-ㄷ)의 문제 역시 해결하지 못했다.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선,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좀 더 소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원인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예를 수집하기 보다는, 예를 수집하여 그 예들의 공통점을 통해 환경을 추정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명숙(2011)

7) 이 외에도 ‘다르다’, ‘고소하다’ 등의 예가 더 있다. ‘다르다’, ‘고소하다’와 관련하여 관형사 ‘딴’과 ‘고소하다’의 방언형 ‘꼬시다’의 경우에 이들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따른’, ‘꼬소하다’와 의미가 거의 같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아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8) 물론 박동근(2000)의 논의는 동음이의 회피와 1음절 한자어들의 의미 분화 현상 등 많은 의미 있는 현상들을 지적했기에 충분히 의의가 있다. 그러나 1음절 한자어들의 의미 분화 현상에 대해서도, ‘과(科)’와 같은 원인이 분명한 어두 경음화의 접근 방법으로 접근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비록 1음절 한자어들이 2음절 이하에서 경음화를 겪는 경우에 어두에서도 경음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법[경제법]’의 ‘법’과 같이 어두에서는 경음화를 겪지 않는 사례와, ‘금전(金錢)’의 ‘전’이 ‘쩐’으로 경음화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세국어사전’의 표제어 중 추출한 어두 경음화 목록을 주관에 따라 가감한 자료를 가지고 그 단어들의 공통점을 분석하고 어두 경음화의 환경을 논해보고자 한다.

III. 자료 분석을 통한 환경 설정

1. 분석 개요

1.1. 대상 자료

어두 경음화 실현 목록은 기본적으로 한명숙(2011)에서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추출한 목록(한명숙 2011: 22~28) 411개에 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가감하여 용언(160개) 체언(204개) 기타(23개)로 총 387개의 단어 목록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⁹⁾ 따라서 주로 표준어를 그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 목록은 비교적 어두 경음화가 잘 일어난다고 판단되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 형태에 대해서 이질감이 크지 않는 단어들이다. 물론 연구자의 주관에 의거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어두 경음화 단어 추출이 필요할 것이나 몇 천 몇 만 단어를 다수의 일반인에게 실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하다. 따라서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연구자 주관에 의한 단어 목록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도록 한다.

또한 비교를 위한 구어 말뭉치 자료는 21세기 세종 기획 형태소 분석 구어 말뭉치(5CT_0013.txt~9CT_0013.txt, 200개 파일, 1609194개 형태소)를 대상으로 한다. 말뭉치 분석 프로그램은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한마루2.0(이하 한마루)으로 진행한다.

9) 자세한 목록은 3.2와 3.3을 참고.

1.2. 분석 방법

앞서 보았듯이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의미 강화는 어두 경음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용언과 일부 체언에서는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지만, 많은 체언은 의미 강화와 무관해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언에 있어서는 의미 강화를 염두에 두고 접근하고자 하고, 체언에 있어서는 그 접근 방법을 달리할 계획이다.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용언과 의미 강화와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먼저 정도 부사와 연어 관계를 이루는 용언을 조사하고 비교하고자 한다. 이때, 정도부사는 구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너무’를 기준으로 삼는다. 정도부사와 연어 관계를 이루는 용언과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차이점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고자 한다. (‘너무’와 연어 관계를 이루는 용언은 한마루를 통해 말뭉치에서 찾는다.) 크게 성질이 비슷한 용언이라는 범주로 묶었지만, 역시 동사와 형용사가 각각 다른 성질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절을 달리하여 형용사, 동사 각각에 대해서 위의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 복합어는 단일어와는 달리 선행요소나 어기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따로 다루도록 한다.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체언의 경우, 의미 강화와 같은 기존 연구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체언의 어두 경음화와 관련한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2에서 논하였듯, 체언에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¹⁰⁾ 그러나 한명숙(2011)에서 조사한 어종에 따른 어두 경음화 빈도의 차이는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어종별로 보면 고유어가 317개로 전체의 77.1%, 한자어에서 어두 경음화를 보이는 것은 44개로 전체 10.7%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어두 경음화 현상은 주로 고유어에서 실현되는 현상이다(한명숙 2011: 30).

10) 박동근(2000)에서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와 관련하여 제기한 예 중, ‘과사무실(과 사무실)’ 등의 ‘과(科)’의 경우 ‘학과’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밝혀진 경음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어종에 따라서 분석을 따로 하고자 한다.¹¹⁾ 또, 위의 각주에서 언급했듯 박동근(2000)의 의미 분화 예들 중 상당수가 1음절 한자어이다. 목록에서도 한자어가 어두 경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음에도, 1음절의 경우 일어난 예 중 한자어가 더 많다. 따라서 음절수에 따라서도 어떠한 변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음절수에 따라서 역시 단어들을 구별 짓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1음절 한자어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접두사, 혹은 합성어의 선행요소가 어두 경음화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분리해서 다루고자 한다. 또 이들을 선행요소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기타라고 설정한, 수식언(부사, 관형사), 독립언(감탄사)의 경우에는 그 양이 전체 단어에 비해 미약하며 그나마도 용언에서 파생된 형태가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절대 용언과 체언을 제외한 나머지 품사의 어두 경음화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을 연구하기 위해선 좀 더 본격적으로 어두 경음화 목록을 크게 하여 연구해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학부 개인 연구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라고 할 수 있겠다.

2. 용언

2.1. 형용사

형용사 단일어이면서 어두 경음화가 실현되는 목록은 다음과 같다(?는 연구자의 주관에 확실히 일어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11) 본고에서는 ‘가스까스’와 같은 외래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외래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은 대체로 유성음이 어두에 왔을 경우에 일어난다. 그러나 ‘게르만(german)’과 같은 외래어에서는 어두 유성음이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따라서 외래어의 어두 경음화 역시 수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고유어나 한자어와는 달리, 국어 음운 체계 이외의 영향 (일본어와 영어의 음운체계)을 받았기 때문에, 언어 내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언어 내적인 환경을 규명하고자 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서 제한다.

(4) 단일어 어두 경음화 형용사 목록

가깝다?	깊다	작다
가볍다	둥글다	적다
거칠다	두껍다	절다
검다	둥글다	좁다
?개으르다	발갛다 ¹²⁾	죽인다 ¹³⁾
굵다	붉다	지리다
(모양이)굽다	사납다	질기다
길다	(힘이)세다	짙다

모두 정도부사와 결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형용사들은 적어도 정도부사와 결합이 가능한 단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역 역시 성립하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말뭉치 중 정도부사 ‘너무’와 연어 관계를 이루는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5) ‘너무’와 말뭉치에서 연어 관계를 이루는 형용사 목록

그렇다	기쁘다	부끄럽다
가볍다	귀찮다	반갑다
거칠다	귀엽다	부럽다
괜찮다	괴롭다	배고프다
굽하다	깊다	바쁘다
고맙다	달다	싫다
고프다	당차다	심하다
길다	다르다	시끄럽다
강하다	두껍다	슬프다
고달프다	두렵다	쉽다
관계없다	덥다	재밌다
가깝다	비싸다	좋다

‘깊다’, ‘적다’ 등의 몇몇 단어들의 경우 목록과 겹치지만, 대부분이 겹치

12) 염밀히 말하면 ‘밝-+아/어하다’의 복합어이지만, ‘밝-’에 현재赤의 의미가 없고, ‘발가하다’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에 공시적으로 단일어로 보았다.

13) 동사 ‘죽다’의 사동사지만 의미가 ‘죽다’와 멀어졌기 때문에, 단일어로 본다.

지 않는다. 그렇다고 확실히 어두 경음화가 일어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처음의 단어 목록 작성이 애초에 연구자 본인의 주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논하였듯 그러한 한계는 이 연구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면을 고려해서 위 두 목록을 비교한다면, 겹치는 경우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두 경음화형이 훨씬 어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에는 있지만 (4)에는 없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6) ‘너무’와 연어 관계는 이루지만, 어두 경음화가 (상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형용사 목록

강하다	그렇다	반갑다	심하다
고달프다	급하다	배고프다	재미없다
고맙다	기쁘다	부끄럽다	재밌다
고프다	다르다	부럽다	젊다
관계없다	달다	비싸다	좋다
괜찮다	당차다	쉽다	즐겁다
괴롭다	덥다	슬프다	지겹다
귀엽다	두렵다	시끄럽다	지나친다
귀찮다	바쁘다	싫다	진하다

이제 이들을 분석해보면, 먼저, (4)의 단어들은 모두 의미상으로 속성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상형용사¹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5)의 경우, ‘그렇다’와 같은 지시형용사도 있다. 성상형용사가 아니면서 어두 경음화를 겪는 단어는 찾기 힘들다. 따라서 성상형용사라는 것이 광범위한 형용사의 어두 경음화 환경이 될 것이다.

(4)가 성상형용사라고 할 때, 모든 성상형용사에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제약을 찾아야 한다. 이들을 보면 ‘달다’, ‘덥다’를 제외하면 모두 감각에 의해 지각되는 형용사가 아니다.¹⁵⁾ 반면 (4)의 경우

14) 남기심·고영근(1985: 117-120)의 의미를 고려한 형용사 분류에는 성상형용사와 지시형용사가 있다.

에는 ‘계으르다’, ‘사납다’, ‘세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각에 의해 지각되는 형용사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4)의 목록은 대부분 시각에 의해 지각되는 ‘시각형용사’¹⁶⁾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역으로 김창섭(1985)의 시각형용사 목록 중 ‘ㄱ, ㄷ, ㅂ, ㅅ, ㅈ’로 시작하는 단어는 대부분 경음화가 일어난다. (‘길다, 굵다, 가늘다, 좁다, 두껍다, 작다, 가깝다, 깊다’ 등) 일어나지 않는 경우(‘곧다’, ‘바르다’)는 동음충돌 저지 원리에 의해서 ‘꽃다’,¹⁷⁾ ‘빠르다’라는 용언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이라 추정할 수 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상형용사이 다	감각형용사이 다	어두 경음화 를 겪는다	시각형용사이 다
성상형용사면	X	X	X	X
감각형용사면	○	X	△ (‘달다’, ‘덥다’)	X
어두 경음화 를 겪는 형용 사면	○	△ (‘계으르다’, '사납다', '세다' 제외)	X	X
시각형용사면	○	○	○	X

따라서 집합 간의 포함 관계가 ‘성상형용사 ⊂ 감각형용사, 어두 경음화를 겪는 형용사 ⊂ 시각형용사’와 같을 것이다. 이때, 감각형용사와 어두 경

15) 이 중 ‘진하다’ 등은 (4)에서 복합어기 때문에 제외된 단어들이다.

16) 시각형용사는 ‘시각적 지각의 내용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을 시각형용사라 하여 그 것들을 고찰의 대상으로 한다’(김창섭 1985: 149)로 정의된다. 이러한 의미상의 특성을 가진 형용사들이 특정 형태론적 과정을 거친다는 점을 김창섭(1985)에서 증명하였다.

17)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과연 동음성이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 이는 동음충돌 저지 원리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화를 겪는 형용사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나 양쪽 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포괄적인 집합인지가 모호하다. 그러나 단어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볼 때, 지금으로써는 아마 감각형용사가 어두 경음화를 겪는 형용사보다 크기가 클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주로 의미의 공통점에 기반으로 한 형용사 분류를 따른 것이다.

통사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에도 단일어 중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형용사들은 유의미한 공통점이 있다. 유현경(2000)에 따르면, 형용사는 크게 주어의 의미역이 경험주인 주관 형용사와 주어의 의미역이 처소 혹은 대상인 객관 형용사로 나뉜다. 이때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단어들은 모두 객관 형용사며, 그 중 성상형용사¹⁸⁾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반면 복합어 형용사는 다음과 같다.

(7) 복합어 어두 경음화 형용사 목록

가득하다	동글납작하다	새까맣다	
가맣다	동글동글하다	새빨갛다	식누렇다
감쪽같다	둥그렇다	새파래지다	작달막하다
갑갑하다	둥그스름하다	새하얗다	작디작다
개운하다	둥글넓적하다	샛노랗다	조그마하다
거멓다	반듯하다	생생하다	조그맣다
고소하다	발그레하다	세련되다	좀스럽다
구부정하다	부스스하다	솔깃하다	좁다랗다
구질구질하다	부시시하다	시꺼멓다	진하다
길쭉하다	?사랑스럽다	시뻘겋다	
동그랗다	살벌하다	?시원하다	
동그스름하다	상큼하다	시커멓다	

이들은 ‘너무’와 연어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의미상으로 정도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단일어와 완전히 그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없다. 이들

18) 여기서 성상형용사는 위의 단락에서 말한 성상형용사에 비해 그 폭이 훨씬 좁다. 의미상으로는 상태와 속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그 주어가 대상 역이면서 격들이 ‘NP가- Adj’(유현경 2000: 241)인 경우만을 (통사론적인) 성상형 용사라고 할 수 있다.

은 보통 어기의 성격을 따라간다고 할 수 있다. ‘가맣다, 거멓다, 구부정하다, 길쭉하다, 동그랗다, 동그스름하다, 동글납작하다, 동글동글하다, 둥그렇다, 둉그스름하다, 둉글넓적하다, 작달막하다, 작디작다, 좁다랗다’의 경우 맨 앞에 있는 어기가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형용사 어간이라고 할 수 있다.(‘감다, 겜다, 굽다, 길다, 동글다, 둉글다, 작다, 좁다’) 따라서 자연히 어두 경음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사랑스럽다’ 역시 ‘사랑’이라는 체언이 어두 경음화를 겪기 때문이고, ‘가득하다, 부스스하다, 부시시하다’ 역시 ‘가득, 부스스, 부시시’라는 부사가 어두 경음화를 겪기 때문에 자연히 어두 경음화를 겪는 예라고 할 수 있다.¹⁹⁾ 어기가 맨 앞에 나오지 않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새까맣다, 새빨갛다, 새파래지다, 새하얗다, 샛노랗다, 시꺼멓다, 시뻘겋다, 시커멓다, 싯누렇다’의 경우 접두사 ‘새/셋/시/싯’이 반드시 어기로 시각형용사를 취하기 때문에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나머지 경우도 해당 어기가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해당 어기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 공통점을 단일어의 경우와 같이 쉽게 파악할 수 없다. 대부분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적 어근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복합어 자체의 의미도 감각적, 시각적인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기 때문이다(‘갑갑하다, 개운하다, 살벌하다, 상큼하다, 솔깃하다 등’은 의미상으로 성상형용사지만, 반드시 감각에 의해 지각된다고 보기 힘들다). 심지어 통사적으로 봤을 때, 주관 형용사인 ‘갑갑하다’와 같은 형용사도 있다. 때문에 복합어의 경우, 어두 경음화를 겪는 단어가 어근 중에 없을 경우에는 어두 경음화 여부를 예측하기 힘들다. 특히 단어적 어근을 어기로 하는 파생어의 경우, 의미상으로도 통사적으로도 예측이 어렵다. 의미상으로 성상형용사라는 넓은 범주로만 포괄이 가능하지만 그것은 큰 의의가 없다.

19) 이러한 부사가 왜 어두 경음화를 겪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용언과 체언에 집중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논하지 않았다. 그러나 용언의 경우와 유사하게 감각에 의해, 특히 시각에 의해 지각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추측해본다.

2.2. 동사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동사 역시 단일어와 복합어의 양상이 다르긴 하지만, 동사는 형용사에 비해 둘 간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복합어 동사가 동사 어간을 어기로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일어 동사 중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목록은 다음과 같다.²⁰⁾

(8) 단일어 어두 경음화 동사 목록²¹⁾

가라앉다	금다	버티다	수그리다
감다	기울다	?벗다	숙이다
거꾸러뜨리다	다듬다	베끼다	(녹이)슬다
거꾸러지다	닳다	복다	자르다
거리끼다	닦다	부리지다	조르다
건네다	(힘이)달리다	부리뜨리다	조리다
건지다	당기다	부리트리다	조이다
구기다	더듬다	부수다	졸다
굽다	던지다	불다	좇다
그슬다	두드리다	비뚤다	줄다
그을다	두들기다	비틀다	줍다
그치다	바수다	삶다	집다
긁다	바스라지다	섞다	

위 목록의 동사들을 형용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분석해보자. 의미적으로

20) 통시적으로 볼 때에는 과생어인 경우('예를 들어, 거꾸러지다'와 '거꾸러뜨리다')지만 공시적으로 분석할 수 없을 때에는 둘 다 단일어 목록에 기재하였다.

21) 앞서 각주에서 논하였듯, 동사에서는 동음충돌 저지 원리가 작용하지 않는 듯하다. '섞다, 슬다, 쫓다'의 경우 '썩다, 쓸다, 쫓다'라는 별개의 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다. '섞다'와 '썩다'의 경우 논항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NP가) NP를 섞다 / NP가 썹다)', '슬다'의 경우 반드시 주어로 '녹'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구별이 용이해서 동음충돌 저지 원리가 약해졌다고 볼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구차한 설명일 뿐이고, 실제로는 동음충돌 저지 원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쫓다'의 경우는 의미도 굉장히 유사한데, 이 '쫓다', '쫓다'의 경우에는 오히려 둘의 의미가 너무 가까워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낫다.)

볼 때, 이들은 모두 정도성을 갖고 있다. 게다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다. 남기심·고영근(1985: 116)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사랑하다, 믿다, 생각하다’ 등의 마음속으로 이어나는 움직임, 그리고 ‘자다, 살다, 쉬다, 앓다’ 등의 움직임을 지닌 상태, ‘흐르다, 솟다, 피다’와 같이 자연의 움직임을 표시한 말들과 구별하였다. 특히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동사는 그 중 대부분이 감각에 의해서, 특히 시각에 의해서 지각이 이루어지는 동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힘이)달리다’와 ‘버티다’의 경우 예외). 그러나 동사의 경우 이러한 분류는 주관적이고, 경계를 명백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통사적인 특징을 알아보면, 자동사와 타동사가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동사인 경우에도 필수 부사어를 필요로 하지 않고, 타동사인 경우에도 필수 부사어를 필요하지 않는다. 즉, ‘사귀다’와 같은 불완전 자동사나 ‘닮다’와 같은 불완전 타동사의 경우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동사의 경우 의미적으로 정도성이 있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하고, 통사적으로는 필수부사어를 갖지 않아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와 어두 경음화 실현 범주가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가다’와 같은 경우 박동근(2000)은 동음충돌 저지 원리로 설명했지만, 동음충돌 저지 원리가 동사에서 온전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왜 ‘가다’가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다’의 경우 구체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완전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료를 가지고 최대한 포괄적으로 어두 경음화 범주를 설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단일어 동사의 어두 경음화를 설명하면, 복합어 단일어 동사의 어두 경음화는 유추가 가능하다.

(9) 복합어 어두 경음화 동사 목록

가라앉히다	그슬리다	동그래지다	벌거벗다
감기다	그을리다	등그레지다	벌거벗기다
구겨지다	기울어지다	발가벗다	벗기다
구부러지다	기울이다	발가벗기다	벗겨지다
구부리다	더듬거리다	벼팅기다	부서지다

부서뜨리다	사랑하다	잘리우다	좇아오다
부스러지다	새치기하다	졸아들다	줄이다
불리다	섞이다	졸아붙다	집어내다
비뚤어지다	성내다	졸이다	
비틀리다	잘라먹다	좁히다	
비틀어지다	잘리다	좇아가다	

‘사랑하다, 새치기하다, 성내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기가 (8)에 있는 복합어이다. 따라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8)에서 이미 설명이 되었다. 위의 네 단어 중에서 ‘사랑하다, 새치기하다, 성내다’의 경우 어기인 ‘사랑, 새치기, 성’이 모두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체언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3. 체언22)

체언의 경우 3.1에서 말했듯, 어종과 음절수와 단어 구성 방법을 모두 고려해야만 한다. 그 세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작성한 목록은 다음 표와 같다.

(10) 체언 어두 경음화 표

1음절		2음절 이상		
		단일어	복합어	
			어두 형태소 1음절	어두 형태소 2음절 이상
고	꼴	가시	체언	체언
	?꼽	가죽	꼴목	가락지
	돌	가지	꼴짜기	고무줄
	둑	강냉이	곰장애	고추장
	볼	개구리	곱빼기	고춧가루
	속	개미	곱셈	다락방

22) 용언에 대비하여 체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명사나 수사에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정도는 아주 약하기 때문에, 명사라고 봐도 문제가 없다.

1음절	단일어	2음절 이상	
		복합어	
		어두 형태소 1음절	어두 형태소 2음절 이상
쇠	거적	돌멩이	
	거죽	동그라미	
	건더기	되놈	
	고깥	둑길	
	고두밥	둑방	
	고무	볼때기	다홍빛
	고추	쇠고랑	두레박
	골통	쇠망치	시궁창
	골초	쇠그물	작대기
	곰보	쇠고리	소낙비
	팽이	쇠스랑	장구벌레
	구석	쇠창살	
	굴뚝	쇳가루	
	다락	쇳덩어리	
	다래끼	쇳조각	
	덩굴	족재비	
	도랑	족집게	
	돼지		용언
	두꺼비	거리낌	
	두드러기	검둥이	
	?바구니	구김	
	번데기	구김살	
	벼룩	그을음	
	병아리	볶음	
	부스러기	볶음밥	
	사나이	곶감	
	사내	작은고모	
	사람	작은댁	
	사랑	작은딸	
	새끼	작은며느리	
	새치기	작은아들	
	생쥐	작은아버지	
	소나기	작은어머니	
	수세미	작은언니	

한자어	1음절	2음절 이상		
		단일어	복합어	
			어두 형태소 1음절	어두 형태소 2음절 이상
시치미 자옥 자국 자트리 작대 장딴지 장아찌 조각 조금 좀 조무래기 족두리 주꾸미 줄기 진드기		작은엄마 작은오빠 작은집 작은할머니 작은형 조림 지린내 집게	수식언	수식언
		갓난아기 갓난이 새것 저기		
		저번 저쪽		달랑쇠
		단어적 어근	단어적 어근	
		벌거숭이	곱슬머리	
		접두사	구정물	
		강소주		
건(件) 공(空) 급(級) 기(氣) 본(本) 생(生) 성(性) 장(長) 전(錢) 점(點)		감방 계속 고물 과자 권투 두부 사장 사이비 소련 소주 숙맥 자식 장대 제일	생고생 생고집 생과자 생기초 생맥주 생방송 생병 생음악 생중계 생즙 생초보 졸병 진초록	소주병 소주잔 중국어 중국인
한자어+고유어			한자어+고유어	

1음절	단일어	2음절 이상	
		복합어	
		어두 형태소 1음절	어두 형태소 2음절 이상
중국	공짜		
	공돈		
	본때		
	본뜨다		
	상놈		
	생것		
	생고기		
	생고무		
	생과일		
	생굴		
	생김치		
	생눈		
	생니		사모님
	생닭		사장님
	?생답배		중국말
	생돈		중국집
	생떼		
	생라면		
	생미역		
	생밤		
	생소리		
	생쌀		
	생트집		
	생파		
	생판		
	장돌뱅이		
	줄개		
	진보라		

※ 복합어의 경우, 어두 경음화의 음운론적인 환경인 어두에 오는 형태소(어기 혹은 접두사)를 기준으로 한다.

※ 복합어 어두에 오는 어기가 용언의 경우, 3.2에서 용언을 음절수에 따라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절수를 굳이 구별하지 않는다.

※ 한자어의 경우, 엄밀한 의미로 2음절 이상에서 단일어가 거의 없다. 김창섭 (1998: 455-457)에 따르면 어근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각각의 한자가 하나의 형

태소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국어 조어법에서 흔히 말하는 ‘정확(正確)’과 같은 어근₂과는 성격이 다르다(‘정확’은 ‘어근₁+어근₂’의 구조이면서, 어근₂이다). 그러나 ‘어근₁+어근₂’구조에서 추출되어 ‘어근+단어(혹은 어근)’의 구조에 쓰이게 되기도 한다. ‘폐광(廢鑛)’의 ‘폐(廢)’가 ‘폐전전지(廢乾電池)’와 같이 쓰였다고 해서 그 가능성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폐(廢)’는 여전히 ‘어근’이다. 이때 이렇게 문법 단위인 단어와 결합이 가능하게 승격된 것을 어근₂과 구별하여 어근₃이라 한다. 한자어 복합어 계열의 어두에 오는 1음절 요소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어근₃의 성격을 갖는다. 이들 중 일부는 ‘양(洋)과자’와 같이 고유어 단어와도 결합하는데 이 경우에는 접두사화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어근₃’은 한국어 문법에서 고유어 형태소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근₁+어근₂’의 구조는 복합어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근₂나 어근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부터 복합어로 본다. 따라서 어근₂인 ‘진(津)’(‘진하다’의 어근)과 체언 ‘초록(草綠)’, ‘보라’가 결합한 ‘진초록’, ‘진보라’나 어근₃ ‘졸(卒)’의 ‘졸병’, ‘졸개(卒)’ 등만 복합어로 본다. ‘생(生)’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하여 보통 접두사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생으로(날로)’와 같이 쓰이는 예가 없지 않기 때문에 체언으로 보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생’ 중에서 의미가 ‘익히지 않은’이 아닌 경우에는 접두사에 가깝다. 따라서 한자어에서는 이런 분류가 모호하기 때문에, 어두에 오는 어기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지 않았다.

- ※ 이들 중 2음절 이상 단일어의 ‘골초’의 ‘골’이 ‘골수’에서, ‘골통’이 ‘骨通’에서 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단일어로 취급하기로 한다.
- ※ 어두에 1음절 체언이 오는 복합어 중 ‘곰장어’, ‘족제비’와 ‘족집개’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 ‘곰’²³⁾이 등재되어 있지만, 현재 거의 쓰이지 않는다. ‘장어’, ‘제비’, ‘집개’가 분석이 되기 때문에, 단일어라고 볼 수 없으나 선행하는 요소가 체언인지 단어적 어근인지 접두사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여기서는 체언으로 본다.
- ※ 어두에 용언이 오는 복합어 중 ‘곶감’의 경우 ‘곶다’가 통시적으로 ‘꽃다’로 어두 경음화되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완전히 어휘화된 단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복합어로 본다.
- ※ 어두에 1음절 수식언이 오는 복합어 중 ‘저번’의 경우 본래 ‘這番’으로 한자어이다. 그러나 ‘저기’, ‘저쪽’ 등과 ‘이번’ 등을 고려했을 때, 지시관형사 ‘저’와 ‘番’의 합성어로 취급하도록 한다.
- ※ ‘벌거벗다’, ‘벌거숭이’의 ‘벌거’와 ‘곱슬머리’, ‘곱슬곱슬’의 ‘곱슬’, ‘구정물’의 ‘구정’은 단어의 자격을 갖지 못했지만, 의미를 갖고 있는 형태소라는 점에서 단어적 어근으로 보았다.

23) ‘곰치’의 방언형.

어종에 따른 어두 경음화 성향이 있는지 알아보자. 여태까지의 연구는 한명숙(2011)과 같이 어두 경음화를 주로 고유어에 국한된 현상으로 파악하였다. 품사에 관계없이 본다면 고유어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체언의 경우에는 어형만으로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총 204개의 체언 중에서 한자어 어기로 시작하는 경우가 총 74개로 그 수가 적지 않다. 또한 ‘생(生)’과 같은 접사의 경우, 생산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 수는 목록의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많아질 수 있다.

음절에 따라 다시 세분화하여 보면, 한자어 1음절 체언이나 어근₃의 경우, 박동근(2000)의 연구와 같이 의미 변화를 입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며 본래 한자 어근₁의 의미에서 멀어졌거나 많은 하위 의미 중에 하나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²⁴⁾ 예를 들어 ‘생’의 경우도 ‘생이별’, ‘생지옥’과 같이 ‘살아서 겪는’이라는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어두 경음화가 일어났을 때 훨씬 어색하다. 또,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복합어의 단어 혹은 어근₂이나 어근₃이 고유어와도 잘 결합한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면 한자어 중에서 고유어 형태소화가 많이 이루어진 경우에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 전체 체언의 수가 한자어가 고유어에 비해 훨씬 많음에도(표본이 된 연세한국어사전을 기준으로 고유어 명사는 6177, 한자어 명사는 24595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체언에 한해서는 고유어가 한자어 보다 많다는 것은 어두 경음화 현상이 한자어보다는 고유어에서 더 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한자어에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알기 위해서는 1음절과 2음절 이상 단일어 목록과, ‘상’, ‘줄’, ‘진’ 등의 복합어 어두에 있는 어기의 공통점을 파악해야만 한다. 1음절 한자어는 모두 본래 한자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특히 한 의미로 쓰일 때만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다. 비록 그 정

24)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이 형태소 단위에서 일어난다고 볼 때, ‘생’이나 ‘진’과 같은 체언 어기나, 어근이 어휘부에 등재될 때 어두 경음화 자질을 갖고 있는 것이라 본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단일 한자어로 보는 ‘소련’과 같은 경우 그 자체가 어휘부에 어두 경음화 자질을 갖고 등재되어 있는 것이다.

도의 차는 있어, ‘건, 공, 기, 장, 전’의 경우에는 어두 경음화된 ‘건, 꽁, 끼, 짱, 쪐’의 의미로 쓰일 때는 평음형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들은 특히 고유어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像)’이 ‘인상’을 가리키는 용법으로 의미를 한정하여 사용해도 ‘쌍’으로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어두 경음화의 환경보다 넓은 범위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유의미한 좁은 범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2음절 이상 단일어 목록의 경우, 대부분 ‘X하다’의 어기가 되는 등 고유어화도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고려’나 ‘조준’과 같이 ‘X하다’ 어기가 되는 한자어 중에서도,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가 더 많다. 또한 ‘과자’가 ‘과자 가게’ 등으로 고유어와 결합이 된다고 할 때, ‘사탕’ 같은 한자어가 어두 경음화가 안 되는 것 역시 그런 예로, 이들은 고유어화되었다고 해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2음절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고유어의 경우는 용언과 같이 어느 정도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체언은 2에서 보았듯 정도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용언과 마찬가지로 단일어를 설명하면 대부분 복합어는 단일어에서 어기가 나왔기에 설명이 가능하다. 비록 “곰”, “되”, “족”, “두레”, “시궁”的 경우 공식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 체언이기 때문에, 어두 경음화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두에 체언 어기, 용언 어기가 오는 경우에는 단일어 체언이나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용언 목록에 그 어기가 있다. 때문에 어두 경음화를 예측할 수 있다. 수식언의 관형사 ‘새’와 ‘저’ 등 역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새것’과 ‘저쪽’ 등이 어두 경음화를 겪는다고 할 수 있다.²⁵⁾ 단어적 어근인 ‘벌거’의 경우 용언에서도 ‘벌거벗다’ 등이 어두 경음화를 겪는다는 것을 보았다. ‘곱슬머리’의 ‘곱슬’은 반복되어 ‘곱슬곱슬’이라는 부사를 형성하는 데 이 부사를 어두 경음화를 겪는다. 따라서 ‘곱슬’ 자체에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성질이 있다고 보인다.²⁶⁾ 그렇다면 단일 고유어 체

25) ‘갓난아이’, ‘갓난이’의 경우 부사 ‘갓’이 보통 어두 경음화를 겪지 않는다. (“갓들이 지난 아이”) 이 경우에는 통사적 구성이 어휘화되면서 구체적인 지시대상이 있는 명사라는 점에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난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본다.

언 중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들은 공통범주가 문제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공통점은 굉장히 미약하다. 일단 1음절 고유어 체언은 어두 경음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1음절 고유어 체언 자체가 그 수가 적은 것을 고려했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손’, ‘발’, ‘귀’, ‘곰’과 같은 1음절 고유어 체언이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2음절 이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구체적인 지시물을 갖고 있다는 의미상의 공통점은 있지만, ‘가슴’, ‘다리’, ‘바퀴’ 등 구체적인 지시물을 갖고 있는 고유어 체언이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의미 분화로 봤을 때도 ‘가슴’의 경우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여 ‘신체 부위’인 ‘가슴’이 아닌 용법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늘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곧 체언에서의 어두 경음화는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환경이 거의 제한적이 않아 보이는 2음절 이상의 고유어에서 한명숙(2011)에서도 90% 이상이 경음화로 실현되었던 ‘주꾸미’, ‘수세미’ 그리고 ‘곰장어’,²⁷⁾ ‘꼴초’, ‘꼴통’²⁸⁾ 등의 경우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어에서 어두 경음화된 형태로 사용한다. 표기에서만 어두 경음화를 시키지 않고, 최근에 들어서는 그 표기마저도 어두 경음화형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들의 경우 어두 경음화가 되어서 경음이 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본래 경음으로 실현되던 것을 표기법 제정 시에 평음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0% 안쪽의 예외로 ‘수세미’, ‘주꾸미’ 등으로 발음하는 사람의 경우 표기에 이끌려서 그렇게 발음했다고 보기 쉽다. 이러한 예들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하자면, ‘어두 경음화’라는 주제 하에 논의할 점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을 단지 공식적인 발음에서 많은 경우 경음화되어 나타난다는 것만으로 본래 경음형이라 확답할 수는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통시적인 관측이 필요

26) 시각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7) ‘곰치’는 그런 반면에 [곰치]로 발음되기도 하기 때문에, ‘곰’을 분석한다면 ‘곰장어’ 역시 어두 경음화를 겪었다고 보아야 한다.

28) 위의 각주에서 보았듯 이들의 ‘꼴’을 분석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할 것이다.

IV. 결론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두 경음화의 언어 내적 원인으로는 크게 의미 강화와 의미 분화가 있었다. 그러나 의미 강화의 경우 전반적으로 어두 경음화와 깊은 관련이 있지만 체언까지 포함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의미 분화의 경우 일부 예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료를 바탕으로 다소 포함적이지만 어두 경음화의 환경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용언은 모두 강화와 관련이 있으며, 형용사의 경우 의미상으로 시각형용사를 포함한 감각형용사가 어두 경음화 실현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통사적으로는 객관 형용사 중 성상형용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사 역시 형용사와 유사하다. 의미상으로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과, 통사적으로는 필수부사어를 필요하지 않는 비교적 통사적으로 완전한 동사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용언의 경우에는 완전히 환경을 알아낸 것은 아니라 윤곽선이 잡힌 방면, 체언의 경우에는 자료를 통해서 환경을 조사하는 것에 실패하였다. 고유어 혹은 고유어화된 한자어 중에서 실제 지시 대상을 갖는 단어가 많지만 그러한 단어 중에서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것은 거의 무작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용언과 체언 모두 단일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용언과 체언의 경우 서로 결과가 많이 다르긴 했지만, 의미상의 공통점이 있었다. 이는 형용사의 경우 성상형용사, 동사의 경우 구체적 움직임이 있는 동사, 체언의 경우 실제 지시 대상이 존재하는 체언이라는 의미상의 특징으로 모두 묘사하는 데에 쓰이는 단어라는 점이다. 그러나 ‘묘사’라는 말이 언어학적인 개념이 아니고 명확한 단어 목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범주를 설정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다. 그리고 화자의 의도가 개입하기 때문에 단어목록만으로 찾아내기 힘들다는 것 역시 단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처럼 임의의 단어목록을 바탕으로 어두 경음화에 대해서 접근하기보다 구어 전사 자료에서 화맥과 발화의도 등을 모두 고려해서 어두 경음화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구어 말뭉치의 경우, 전사에 있어서 이유가 있는 어두 경음화(외래어 유성음이 어두에서 경음으로 나타나는 것²⁹⁾)만 음성형을 기록하고 있기에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두 경음화를 위한 말뭉치나 전사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자료가 확충된다면, 임의로 설정한 ‘묘사하는 단어’라는 단어 범주 와 어두 경음화의 연관성 뿐만이 아니라, 같은 단어여도 어두 경음화가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이를 구별하여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면 본고에서 거의 환경을 찾지 못했던 체언의 어두 경음화 역시 어떠한 환경에서 이뤄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9) 본고에서는 ‘이유 없는 어두 경음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명목 하에, 외래어의 어두 경음화의 환경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외래어의 경우 역시 모든 유성음이 경음화되지도 않는 등 논의할 여지가 남아있지만, 본고의 논의 대상들에 비하면 비교적 환경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참고문헌

- 김성규(2001), 「음성 언어 층위와 문자 언어 층위의 위상에 대한 연구」, 『언어학』 30, 한국언어학회, 65-88.
- 김성규 · 정승철(2005), 『소리와 발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김창섭(1985), 시각형용사의 어휘론, 『관악어문연구』 1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49-176.
- _____ (1998), 접두사의 사전적 처리, 『한국어 형태론 연구』, 태학사, 449-461.
- 남기심 · 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박동근(2000), 말머리에 나타나는 이유 없는 된소리 현상 연구, 『언어학』 27, 한국언어학회, 179-200.
- 배주채 (1996), 『국어 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 안소진(2005), ‘한자어의 경음화’에 대한 재론, 『국어학』 45, 국어학회, 69-92.
- 유현경(2000), 국어 형용사 유형에 대한 연구, 『국어학』 36, 국어학회, 221-258.
- 이기문(1972),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미재(1989), 어두 경음화에 관한 사회 언어학적 고찰: 언어 변화의 측면에서, 『논문집』 7, 수원대학교, 61-73.
- 이진호(2005),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 이호영(2009), 서울 토박이들의 경음화 선호도, 『말소리와 음성과학』 1(2), 한국음성학회, 151-162.
- 전광현(1981), 전라북도 옥구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국문학논집』 10,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27.
- 한명숙(2011),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